



RISTecBiz

SIMPAC그룹 계열사로 새출발을 합니다.

www.ristecbi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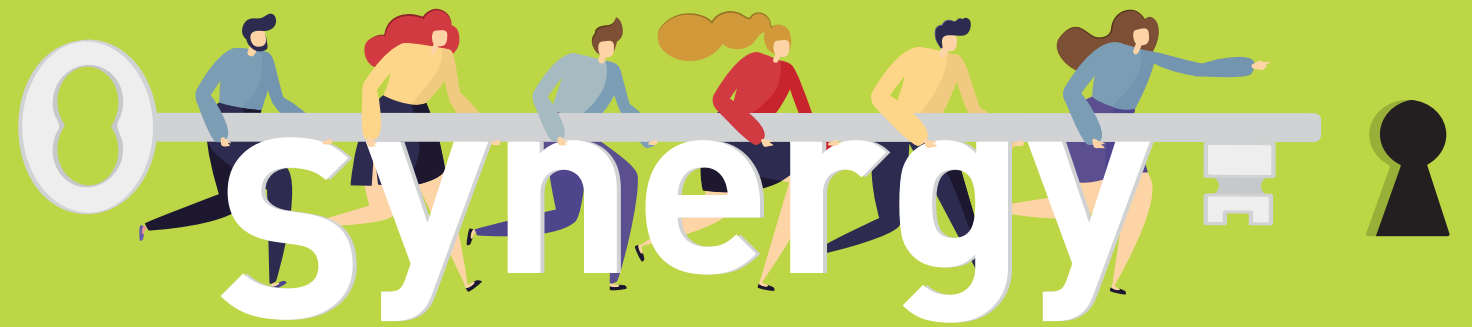
안정된 기술력과 변함없는 품질로 신뢰받는 리스텍비즈는 SIMPAC그룹 계열사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리스텍비즈가 영위하는 자원재활용사업은 SIMPAC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계열사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해, SIMPAC그룹의 더 큰 도약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본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6길 46 TEL 061-792-8812
광양공장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97 TEL 061-797-2000

 리스텍비즈

Competitiveness &



서로의 역량을 연결해 만드는 시너지

SIMPAC
story

2019 SUMMER

VOL
47

 **SIMPAC**

SIMPAC STORY 2019 SUMMER VOL.47



RISTecBiz

SIMPAC그룹 계열사로 새출발을 합니다.

www.ristecbiz.com

안정된 기술력과 변함없는 품질로 신뢰받는 리스텍비즈는 SIMPAC그룹 계열사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리스텍비즈가 영위하는 자원재활용사업은 SIMPAC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계열사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해, SIMPAC그룹의 더 큰 도약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SIMPAC STORY 2019 SUMMER VOL.47

Competitiveness & Synergy

서로의 역량을 연결해 만드는 시너지

SIMPAC story

2019 SUMMER

VOL
47



RISTecBiz

SIMPAC그룹 계열사로 새출발을 합니다.

www.ristecbi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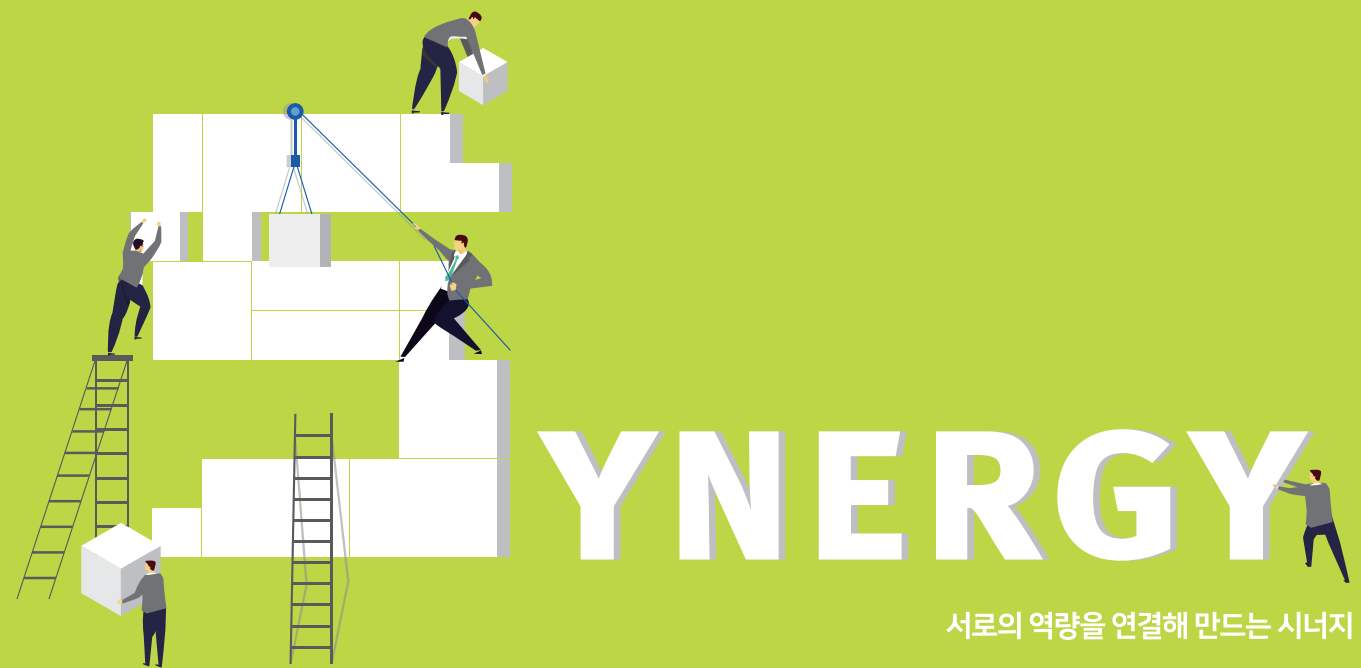
안정된 기술력과 변함없는 품질로 신뢰받는 리스텍비즈는 SIMPAC그룹 계열사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리스텍비즈가 영위하는 자원재활용사업은 SIMPAC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계열사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해, SIMPAC그룹의 더 큰 도약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본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6길 46 TEL 061-792-8812
광양공장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97 TEL 061-797-2000

 리스텍비즈

Competitiveness &



YNERGY

서로의 역량을 연결해 만드는 시너지

SIMPAC
story
2019 SUMMER

VOL
47

 SIMPAC

SIMPAC STORY 2019 SUMMER VOL.47

SIMPAC story

SIMPAC STORY 2019년 SUMMER

통권 47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9년 10월 00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이도영 사원 02-3780-4923 dylee@simpac.co.kr | 김유림 사원 032-590-2041 yurkim@simpac.co.kr

(주)SIMPAC 프레스BU 김다희 사원 032-510-0040 daheekim@simpac.co.kr (주)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주)SIMPAC 메탈BU 선광규 과장 054-271-8724 kgsun@simpac.co.kr | 이준기 과장 041-360-0122 jklee@simpac.co.kr

(주)리스텍비즈 김영철 팀장 061-797-2012 yckim@simpac.co.kr



FACT & STORY

04

#01 INTRO

SIMPAC의 경쟁력과 시너지,
최고의 제품으로부터

08

#02 INTERVIEW

생산 현장에서 발현하는
경쟁력과 시너지

12

#03 INFO

SIMPAC그룹,
경쟁력과 시너지를 만든다



INSIDE SIMPAC

14

SIMPAC NEWS

SIMPAC그룹 소식

20

FOCUS

함께 마음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24

현장 인사이드

세계시장에 이름을 새기는 그날까지,
불타오르다

30

SIMPAC 인사이드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일터를 위해
우리는 달린다!



LIFE & CULTURE

34

워라벨 큐레이션

일에서 즐거움을 창조하는 기술
잡 크래프트 Job Craft

36

취미 프로젝트

동료와 함께 즐기는 볼링으로
스트레스까지 '스트라이크'!

40

SIMPAC_STARGRAM

추억스타그램

FACT & STORY
INTRO
#01

SIMPAC의
경쟁력과
시너지,

최고의
제품으로부터

기업의 가치는 생산 제품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리고 각 계열사의 제품 경쟁력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발휘하면 그룹 전체가 진일보한다. SIMPAC그룹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치. SIMPAC 발전의 든든한 배경이 된 제품과 그 안에 담긴 남다른 기술력을 살펴보자.

SIMPAC Press B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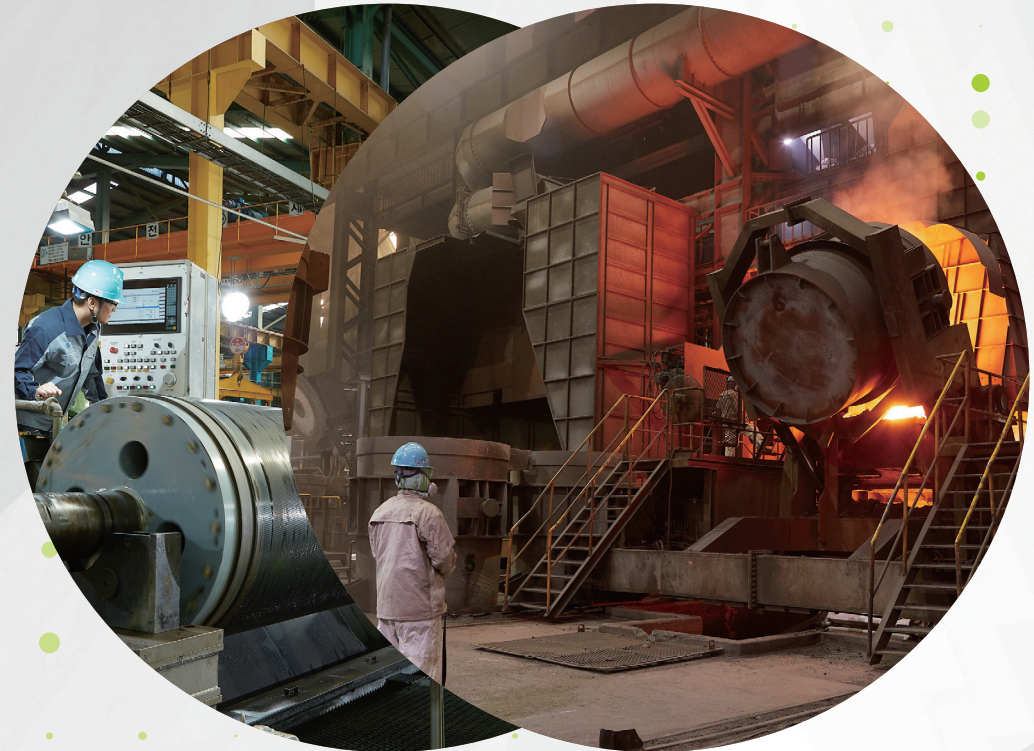


세계로 뻗어 가는 ‘국가대표 프레스’



1973년 동성개발공업으로부터 출발한 SIMPAC 프레스는 ‘국내 1위 프레스’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1991년 설립한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기계식프레스·유압프레스·서보프레스·텐덤라인·자동화솔루션 등 폭넓은 제품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가드너사로부터 세계공작기계매출 100대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2017년 기준 39%라는 경이적인 국내시장 점유율을 기록, 프레스 선두기업으로서의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SIMPAC 프레스는 이처럼 뛰어난 제품력을 바탕으로 2018년 40%에 머무른 해외 매출 비중을 향후 50% 이상으로 확대, 글로벌 대표 프레스 메이커로 자리 잡는다는 계획이다.

SIMPAC Metal BU



‘최고의 합금철’과 ‘세계 수준의 롤 피복 기술’



SIMPAC은 1959년 국내 최초로 합금철을 생산한 이래, 철강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고품질 합금철을 60년째 안정적으로 생산 중이다. 포항공장과 당진공장에서 페로망간·실리콘망간·페로니켈크롬 등 주요 합금철을 연간 28만 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중·저탄소 페로알로이 및 고순도 규소철합금의 제조방법에 관한 국내 특허와 KS 인증을 획득했고, 고부가가치 합금철인 중·저탄소 페로망간을 생산하며 중합 합금철 메이커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고 있다.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제강사에 최고 수준의 합금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해외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철공장의 산세·도금·도장라인과 제지공장의 탈수·건조코팅라인에서 사용되는 롤의 표면을 고무와 폴리우레탄으로 감싸는 롤 피복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고객사 사용환경에 최적화된 피복재 제조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Sigma NIP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사 프레스 롤 Nip 측정 및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IMPAC Industries



고무화학 분야의 ‘튼튼한 설비 파트너’



SIMPAC은 1980년대부터 해외 제품 일색이던 고무화학산업기계 분야에서 꾸준히 국산화를 이끌어 왔다. 우수한 주조 기술력과 80년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믹서·믹싱밀을 생산한다. 그 결과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요코하마타이어 등 국내외 유수의 제조사와 함께 탄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그런가하면 SIMPAC의 감속기는 제철·제강·제지·고무·플라스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며, 제품 효율 극대화를 통한 소형화 및 저소음 설계·편리한 유지보수·철저한 품질관리를 제공한다. 포스코·한국타이어·현대중공업·LG화학 등 글로벌 대기업을 통해 제품의 고밀도·고효율을 인정받았다.

RISTecBiz



철강 2차 분진에서 생산하는 ‘고순도 산화아연’



철강산업의 재활용공정에서 발생하는 2차 분진은 다량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납 등 필요없는 물질도 함유돼 있어 지금까지 전량 폐기되고 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실용화 전문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2008년 1월 리스텍비즈를 설립, 2011년 2차 분진으로부터 고순도 산화아연을 생산하는 기술을 상용화했다. 이후 리스텍비즈는 2018년 10월 SIMPAC그룹으로 편입, 7천 톤의 분진에서 연간 5천 톤의 고순도 산화아연을 생산하고 있다.

FACT & STORY
INTERVIEW
#02



부서와 팀원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경쟁과 시너지의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한계가 있고 느립니다. 반면 주어진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다 보면 어느새 풀리곤 합니다.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이형주 과장

경쟁력과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당신'입니다. 서로 한 발 더 움직이고 소통하며 협력한다면 회사는 발전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당연히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도 더욱 높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이재진 차장

생산 현장에서 발현하는

경쟁력과

생각해 보면 생산 현장만큼 경쟁력 및 시너지 강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없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SIMPAC 사우들과 공유하기 위해 각 계열사 생산팀 직원 5명이 두 팔 걷고 나섰다. 이들이 들려주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에는 회사와 임직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경쟁과 시너지의 힘'이 담겨 있었다.

시너지

경쟁력과 시너지를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선 의지'입니다. 현 상황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적인 팀과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텍비즈 생산팀 김관빈 팀장



경쟁력과 시너지의 밑바탕에는 '품질'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공정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품질이 떨어지면 고객사가 줄어들 것이고 팀과 회사의 경쟁력도 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품질은 언제나 사수해야 합니다.

SIMPAC 메탈BU 롤생산팀
김규찬 과장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이 경쟁력과 시너지의 양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적절하게 채용하고 운영해야 생산 공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런 와중에 기술 개발이 꾸준히 진행돼야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SIMPAC 메탈BU 생산팀
안재형 과장



Q 각 생산팀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재진 차장 현장에서 우수한 프레스를 생산하는 100여 명의 생산 엔지니어들이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수시로 진행되는 국내의 출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당백의 역할을 수행하고, 오랜 경험과 전문적 기술을 바탕으로 속속 등장하는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회사의 일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니, 엔지니어들의 존재 자체가 저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재형 과장 메탈BU 생산팀에서는 제강사에서 요구하는 합금철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 그 자체만으로는 우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회사가 생산하지 못하는 신 강종 기술 개발, 꾸준한 생산 공정 개선·보완 활동 등을 통해 생산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규찬 과장 메탈BU 롤생산팀에서는 제강용·제지용 롤을 피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지용 롤 피복이 한층 높은 기술력을 요합니다. 손상되기 쉬운 종이를 높은 RPM과 압력에서 다루려다 보니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롤 피복에 쓰이는 고무 재질 개선과 연마 방법 개발에 많은 공을 들여 왔는데요. 덕분에 경쟁 업체에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국내 최고 수준 피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형주 과장 믹서에는 고무를 분쇄·배합하는 로터라는 부품이 달려 있는데요. 고무를 분쇄할 때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로터 내부에 냉각수가 뿜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냉각수가 일자로 왔다갔다만 할 수 있게 구멍을 뚫은 탄젠셜 타입을 썼는데, 저희는 꺾배기처럼 꼬여 있는 스파이럴 타입을 올해부터 국내 최초로 개발·적용해 냉각효율을 30%가량 높였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력이 저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빈 팀장 그간 제철소에서 전량 버려지고 있었던 2차 분진을 모아 고순도의 산화아연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특히 리스텍 비즈는 국내 최초로 습식 정제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식 설비를 쓰는 곳보다 여타 중금속 함유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능력은 지금껏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 온 생산팀 직원들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했습니다.

Q 팀원들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안재형 과장 신 강종 개발의 일환으로 두 달 전부터 페로니켈 조업을 시작했어요. 페로니켈을 만드는 회사가 버리는 슬래그를 정제해서 페로니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1년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합금철 시장에서 생산 강종을 다변화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처음 하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고, 지금껏 별 문제없이 페로니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과장 믹서 부품인 로터와 챔버의 내구도를 높이기 위해 그 표면에 강화용접을 하는데요. 고객사의 제품 만족도를 높이고 경화용접에 들어가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경화용접봉을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이 해외 사례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대체 가능한 경화용접봉 리스트를 뽑아 주는 등 여러 방면으로 도와준 덕분에 프로젝트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진 차장 프레스BU 생산팀에서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때로는 강력한 충격이 발생하는 프레스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프레스는 충격에 의해 설비에 부착된 터치스크린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손될 때마다 터치스크린을 바꿔 주다가, 얼마 전 팀원들끼리 힘을 모아 충격방지용 터치스크린 브라켓을 자체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팀원들의 협력과 강력한 의지가 좋은 결과를 낳은 겁니다.

김관빈 팀장 현장 개선 및 보완과 설비·기술 개발을 위해, 각자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매일 직원회의를 실시합니다.

요즘에는 생산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화아연 입자 표면적(BET)을 넓히는 프로젝트와 나노 아연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기에, 동료가 있다는 안도감과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활발하게 팀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과장 롤 피복의 주재료가 고무이니만큼, 고무의 품질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지용 대형롤 하나를 피복할 때마다 1~2톤씩 들어가다 보니 설불리 고무를 바꿀 수 없었는데요. 이런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팀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원하는 수준의 고무로 대체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팀워크가 단단하구나' 싶어 뿌듯합니다.



Q 경쟁력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김규찬 과장 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팀원들의 사기와 건강이 중요합니다. 저희 공장은 롤 피복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특히 접착제 도포 공정에서 보호구를 착용함에도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포장 배치 변경·집진기 및 환풍기 설치·접착제 개선 등 다양한 업무를 검토·수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일하기 좋은 생산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빈 팀장 최근 제품 자동포장기를 도입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장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개선·보완하는 한편, 직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형주 과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 중 하나인 공장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로터와 챔버의 경화용접을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로터는 반자동화가 돼 있지만 챔버는 아직 수작업으로 용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챔버의 반자동화 지그를 제작할 계획이고, 로터 자동화용접도 이후에 빠르게 도입할 전망입니다. 한층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금보다 SNS 등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 차장 원가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시피 SIMPAC은 국내 프레스 부문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최선이 라고 생각해 왔던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 개선, 초과 품질 지양, 부품 모듈화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다 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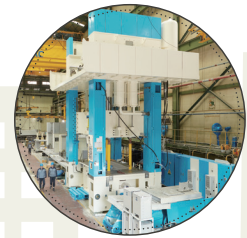
안재형 과장 회사에서 지난 8월에 새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는 한편, 현 팀원들의 재배치와 조업 개선 활동이 불가피한데요.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의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또한 현재 팀원들과 새 인원의 융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근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팀원들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손발을 맞춰 준다면, 일을 보다 수월하고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FACT & STORY
INFO
#03

SIMPAC그룹, 경쟁력과 시너지를 만들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SIMPAC그룹의 경쟁력



대한민국 대표 프레스 메이커 SIMPAC

1 위

국내 1위 프레스 제조 (기계식/유압식/서보프레스)

50 여 개국

미국·중국·인도·유럽·멕시코 등
50여 개국에 프레스 장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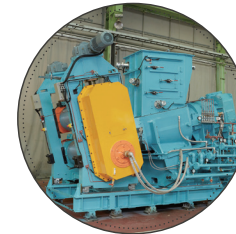
국내 Top-tier 합금철 메이커
(합금철 생산 및 롤제조)

60 년

1959년 국내 최초로 합금철 생산, 60년 노하우

280,000 ton/year

국내 2위의 생산 Capacity 보유



산업기계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

686 ton/year

가좌 1공장 256대/년, 가좌 2공장 120대/년 생산능력 보유

80 년

우수한 주조 기술력과 80년 기술 노하우

SIMPAC Industries

RISTecBiz

2011 년

2007년부터 RIST에서 관련연구 시작, 2011년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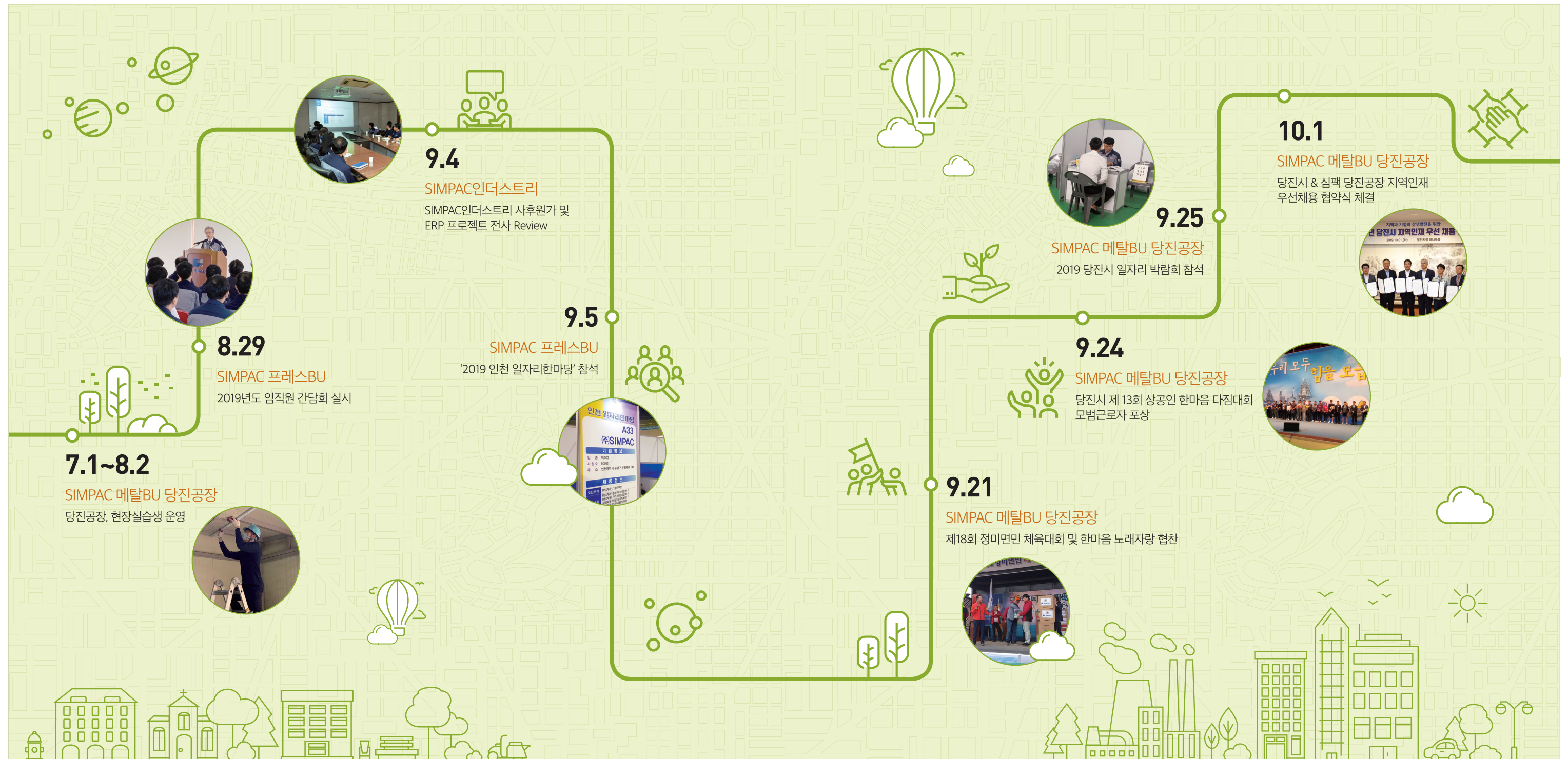
4,000 ton/year

Zn Dust 7천톤 처리, ZnO 5천톤 생산



매립되는 자원에서 고가의 Zn(아연) 회수,
ZnO(고순도 산화아연) 제조

SIMPAC NEWS



SIMPAC NEWS

SIMPAC 프레스BU

2019년도 임직원 간담회 실시

(주)SIMPAC 프레스BU는 지난 8월 29일, 임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임직원 간담회는 최진식 회장을 비롯한 (주)SIMPAC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회사 경영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임직원과 공유하고, 소통 및 화합의 자리를 통해 임직원 사기를 제고시키기 위한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는 최진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영업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국내외 시장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의 솔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더운 여름 시원한 맥주와 안주거리를 먹으며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 됐다.



‘2019 인천 일자리한마당’ 참석

(주)SIMPAC은 지난 9월 5일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된 ‘2019 인천 일자리한마당’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SIMPAC을 포함하여 인천·부천·김포지역의 우수기업 70곳이 참여하고 구직자 약 2,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업 인사담당자가 현장 면접을 통해 약 5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 현장의 열기는 더 뜨거웠다. (주)SIMPAC은 자사 홍보는 물론 현장에서는 당사에 대해 궁금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다양한 지원자들과 인사 담당자가 1대1 개별상담을 하며 SIMPAC 맞춤형 인재들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주)SIMPAC은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현장실습생 운영

지난 6월 당진공장 인근 위치한 신성대학 전기과 손인환 교수님이 모처럼 연락이 전기과 재학생 현장실습 요청이 들어 왔다. 당진공장에서는 현장실습생을 한 번도 운영한 적 없어 조금 거리낌이 있었으나, 그 당시 설비반 인력 부족 및 회사 홍보 차원에서 현장실습생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요청 인원은 총 2명으로 5주(7/1~8/2)동안 현장 실습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설비반 소속으로 현장 직원 업무 보조 및 당진 공장 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다. 실습 기간 학생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현장 실습에 참여한 김익현, 서동명 학생은 “학교 인근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있었는지 몰랐고, 교재 및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책에서 봤던 설비들을 직접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직원 여러분들의 친절한 설명과 가르침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실습 소감을 전했다. 회사에서도 학생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려고 소정의 기념품과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였다.



제18회 정미면민 체육대회 및 한마음 노래자랑 협찬

지난 9월 21일 당진공장 인근에 위치한 천의초등학교에서 정미면 총 17리 약 1,500명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 18회 정미면민 체육대회 및 한마음 노래자랑이 실시되었다. 육상, 축구, 줄다리기 등 5종목의 경기가 마을 리 단위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다. 지역에서 가장 큰 행사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마을에 열정적으로 응원하였다. 공장장 일동은 지역 행사에 축하 및 응원을 드렸다. 오전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끝나고 최종 종합우승은 당진공장이 속해 있는 천의1리가 차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다. 각 마을 텐트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는 축하공연 및 노래자랑을 실시하였다. 그날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어 오후 노래자랑 때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열정을 꺾을 수 없었다. 마지막 행운권 추첨식에는 당진공장 장진석 이사가 단상에 올라가 행운권을 뽑아 지역 주민들에게 당진공장에서 협찬한 경품을 전달해 드렸다. 행사 종료 전 백종춘 정미면 체육회장은 지역 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심팩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SIMPAC NEWS

SIMPAC 메탈BU

당진시 제 13회 상공인 한마음 다짐대회 모범근로자 포상

지난 9월 24일 당진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 13회 상공인 한마음 다짐 대회가 열렸다. 당진관내 45개 업체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진시립합창단 공연을 비롯해 근로자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의 행사와 더불어 족구대회와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등 체육경기가 이어지며, 기업과 근로자간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당진공장에서는 조업 여건상 체육경기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모범근로자 시상에는 참여하였다. 금번 모범근로자는 평소 근면성실하며,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여 현장에서 타의 모범이 된 이현진 조장을 만장일치로 선정하였다. 시상 후 이현진 조장은 모든 공을 직원들에서 돌렸으며, 맡은바 업무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 당진시 일자리 박람회 참석

당진은 시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으로 7년 연속 시 단위 고용률 전국 2위를 달성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당진공장에서는 작년부터 박람회 참여, 청년 구직자 사업 참여, 인근 대학 방문 등 대외 활동으로 회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9월 25일 신성대학교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도 그 일환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당진시에서 주최한 일자리 박람회는 70개 기업 및 구직자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홍장 당진시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작년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심팩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여 1대1 현장 부스 면접도 진행하였다. 이번 면접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회사 홍보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당진시 & 심팩 당진공장 지역인재 우선채용 협약식 체결

지난 10월 1일 당진시, 충남산학융합원, 당진지역 우수 중견기업들이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당진시에서 관내 우수 중견기업 10곳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협약식으로 당진공장도 규모 및 우수한 직원 복지정책으로 선정 되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고, 협약 기업들은 신규인력 채용 시 우수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목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 채용에 이르는 과정에 지역과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지역기업과 함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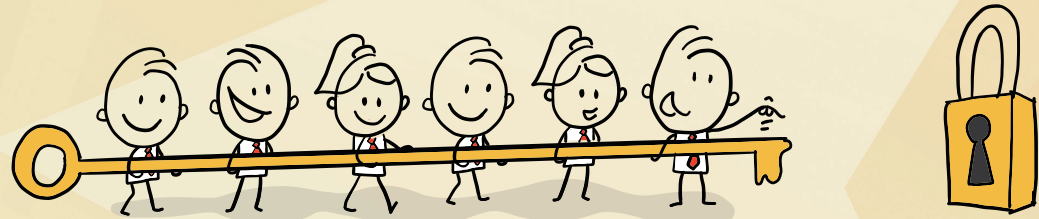
SIMPAC인더스트리

SIMPAC인더스트리 사후원가 및 ERP 프로젝트 전사 Review

SIMPAC인더스트리는 지난 9월 4일, 가좌공장에서 제조원가 및 ERP PI 프로젝트의 최종 리뷰 시간을 가졌다. 제조원가 및 ERP PI 프로젝트는 2018년 10월 워크숍을 시작으로 'SIMPAC인더스트리 프로젝트별 수익성 분석' 도출 과제를 수행하고자 추진되었다. 프로젝트의 최종 리뷰에는 이동한 사장, 최정남 이사를 비롯한 TF 구성원 20여 명이 참석해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고 기대효과 및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프로젝트 주요 성과로는 구성원들이 부서별 업무공유 및 전체 프로세스와 원가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였고, Co-work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긍정적인 마인드와 성취감 등 많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정리되지 않은 각 요소별 분산data를 중앙관리화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함께 마음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함께 일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모은다는 얘기다. 함께해서 시너지가 난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한다는 말이다. SIMPAC인더스트리 제조원가 및 ERP PI(ERP Process Innovation) TFT는 직원들의 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마음과 마음이 모여 시너지를 냈기 때문이다.



타 부서 업무와 동료들을 이해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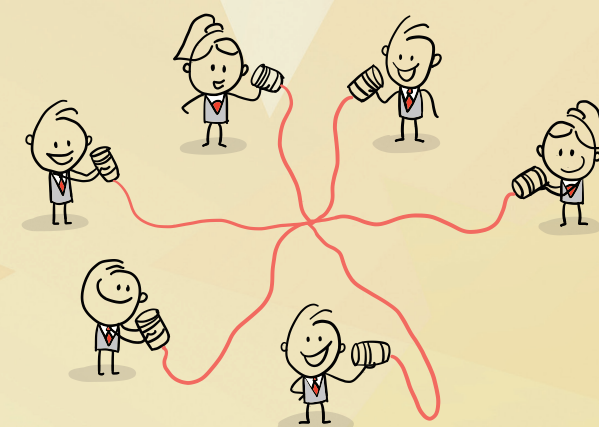
SIMPAC홀딩스 정연중 이사,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팀 문진국 이사 외 재무회계1팀, 경영지원1팀 현창우 과장과 송준혁 사원,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김효수 대리,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이수영 팀장,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이보라 사원, SIMPAC인더스트리 산기영업팀 이미리 사원이 모였다. 이들에게선 하나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난 뒤의 흥분분함이 느껴졌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SIMPAC인더스트리 제조원가 및 ERP PI(ERP Process Innovation) TFT가 바로 그것.

TFT는 지난해 10월, SIMPAC인더스트리 임직원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생산 근로자 등이 참석하여 진행된 'SIMPAC인더스트리 프로젝트별 수익성 분석' 워크숍이 그 시발점이었다. 표준원가 재검토, 목표이익 확보 및 목표원가 달성활동, 원가관리 기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제조원가 분석 및 평가기능 장착, 건적원가의 경쟁력 확보라는 네 가지 목표로 진행된 워크숍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과제가 도출되었고, 이후 이를 수행하기 위해 TFT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월부터 매주 수요일 2시에 TFT 회의가 진행되었다. 김효수 대리가 TFT에 참여했던 소감을 전했다.

“회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일조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TFT 활동을 통해 타 팀의 근무 현황을 비롯하여 애로사항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팀 별 교집합을 찾았다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타 부서에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는 상태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지만 회의가 거듭될수록 다른 팀을 이해하면서 배려심이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TFT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TFT가 진행되었던 지난 8개월은 '모름'에서 '알'으로, '낯설'에서 '편안함'으로 바뀌는 과정과도 같았다. 모름과 낯설음으로 인해 회의 초기에는 종종 의견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동료 간 정이 쌓였다. 이보라 사원과 이미리 사원은 TFT에 참여하는 동료들의 열정과 열의에 반해 회사에 대한 애정을 더 크게 갖게 되었다고 소회했다.

“사실 처음에는 현업이 바쁘다 보니 TFT가 잘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참여하시는 모든 동료들이 최선을 다해 임하고 또 그에 대한 결과 도출이 바로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회사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된 것 자체가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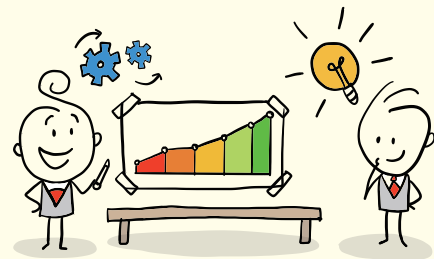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이수영 팀장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이보라 사원

협업으로 이뤄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원가 데이터



SIMPAC인더스트리 제조원가 및 ERP PI(Project Innovation) TFT를 통해 얻은 성과는 값지다. 실시간으로 원가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밀한 데이터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으므로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아진다. 지난 9월 첫째 주에는 TFT 결과에 대한 최종 리뷰가 진행되었다. 김효수 대리가 TFT를 통해 얻은 성과를 설명했다.

“영업팀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설계팀에서 기계의 견적을 내고 구매팀에서 설계 데이터에 따라 구매를 진행합니다. 실제 수주된 금액과 실적 사이의 차이가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전에는 전산 시스템 상에서 수주된 프로젝트 별로 비용이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집계해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TFT를 통해 비용 발생에 따른 데이터 구축을 최대한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영업 단계에서는 수주하는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설계팀은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고, 구매팀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매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동의 데이터가 구축이 되었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주는 든든함은 나 역시 동료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도 한다. TFT에 참석한 구성원들이 강한 책임감으로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이뤄낸 시너지가 좋은 성과를 창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TFT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그 한 사람의 몫을 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수영 팀장은 현창우 과장과 송준혁 사원, 김효수 대리에게 공을 돌렸다.

“현업을 하면서 TFT에 참석을 하다 보니 간혹 신경을 제대로 못 쓴 적도 있었어요. 많은 동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은 결과를 낸 힘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우 과장과 송준혁 사원, 그리고 김효수 대리가 적극적으로 임했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준혁 사원은 인더스트리 ERP 시스템을 배우고 처음 맡은 프로젝트라 보람이 크다.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 일일이 찾아보고 물어보면서 진행한 업무이기에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현창우 과장은 서로 의견이 충돌되거나 결정이 쉽지 않을 때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준 최정남 이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TFT에 참석하면서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며 밝게 미소 지었다.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김효수 대리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1팀
현창우 과장

66 동료와 함께하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나 역시 동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이뤄낸 시너지가
좋은 성과를 창출하는 이유다 99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1팀
송준혁 사원



SIMPAC인더스트리
산기영업팀 이미리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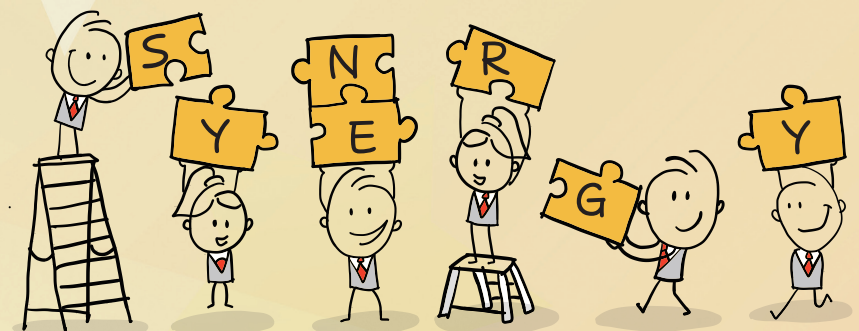


함께 이룬 성과, 시너지의 소중함을 깨닫다

TFT를 진행하고 난 뒤 남은 아쉬움은 없을까 해서 물었더니 모두들 “회식과 술자리 한번 없었다”며 입을 모았다. ‘회식 한번 하자.’는 말은 몇 번 있었지만, 일상이 바쁘니 하루 이틀 미루다 어느새 TFT가 끝나버렸다고. 이들은 “조만간 빨리 뭉치자.”고 말하며 한바탕 웃었다. 현창우 과장은 지난 8개월이 자부심으로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8개월 동안 유익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한번쯤 되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도 되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역량을 키웠을뿐 아니라 자신감, 동기부여 등 많은 걸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 이러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창우 과장의 말에 모두가 동감을 표했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잘 몰라 자신의 주장만을 펼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커졌다. 업무적으로 만나 일 얘기만 하던 직원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 TFT가 진행되면서 일어난 변화였다. 그리고 배려와 존중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발산되었다. 이들은 말한다.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팀워크가 가져온 시너지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이들이 함께 이룬 소중한 성과가 앞으로 값진 결실로 맺어지길 바라본다.



SIMPAC FOUNDRY

세계시장에 이름을 새기는 그날까지,

불타오르다

어느 시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현장이 한 명의 사람이라면 분명 답했을 테다. 365일 하루라도 뜨겁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고.
그간 SIMPAC주물은 주물소재사업의 성공적 홀로서기를 위해, 숨이 차도록 달려왔다.
힘든 장애물을 넘었고 더 거친 장애물을 넘어야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전진의 걸음으로 꿈을 이뤄가는 현장을 찾았다.

》김희락 과장 | SIMPAC주물 소재생산팀 》박지운 과장 | SIMPAC주물 소재생산팀 》김정인 대리 | SIMPAC주물 품질지원팀



#거래처 다변화와 제품개발로 홀로서기에 나서

2017년 12월 SIMPAC그룹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SIMPAC인더스트리에서 주물 소재사업을 분리, SIMPAC주물을 설립한 것이다. 그래서 SIMPAC인더스트리는 산업 기계사업에, SIMPAC주물은 주물소재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업종 전문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수익성과 매출을 높이겠다는 각오 어린 변화였다. 이제 SIMPAC주물이 홀로서기에 나선 지도 약 2년. 현장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질문에 김희락 과장은 변함없다는 답을 전했다.

“SIMPAC주물이라는 새 울타리 안에서 늘 그렇듯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기침체에도 소재생산팀, 품질지원팀, 소재영업팀, 경영지원팀이 함께 성과를 얻고자 노력중이고요, 덕분에 남동과 가좌 두 공장 모두 혼란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정인 대리는 SIMPAC주물의 설립으로 업무 진행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산업기계와 주물의 공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전에는 상호과정 절차가 얹음알음 처리됐다면요, 지금은 모든 걸 기록하고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서류만 많아진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공조할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공조할지가 명확해져서, 업무가 한결 체계화된 느낌입니다.”

더불어, 홀로서기로 인해 SIMPAC주물의 영업 매출이 충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SIMPAC이라는 이름을 믿어주는 기존 고객사가 있지만, SIMPAC주물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객사와 시장 확보가 필요했다. 현재 SIMPAC주물의 대표 거래처는 일본, 미주와 유럽, 국내 순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본 납품률의 하락세로 또 다른 시장 발굴이 요구됐고, SIMPAC주물이 도전장을 내민 곳이 미주지역이었다. 거래처의 다변화에 나선 것이다.

“단일품목 단순 납품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효율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선보여야지, 주목받을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약 2년을 제품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노력한 만큼 미주 컴프레서 업체 쪽 제품개발이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유럽 업체와의 거래에서도 품목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또 기존 고객사에서 신규제품을 의뢰받아 샘플을 작업 중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말부터는 일본 조선업체에 6개의 신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올 3월부터 꾸준히 샘플 개발에 공들여온 결과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박지운 과장은, 시장 개척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 강조했다.



#노하우와 협업을 경쟁력으로 발전 시너지 충전

어떤 더위도 SIMPAC주물 앞에서는 장난 같을 수밖에 없다. 시뵈건 불꽃에 안겨 이어지는 주조와 숨 막히는 열기를 뿜어내는 용탕. 흐르던 땀이 놀라 도망갈 만큼 이곳 현장은 뜨거움 자체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현장을 벗어나 기까지 긴장감 장착 역시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곳을 지켜온 직원들은 SIMPAC주물의 가장 큰 자산이자 경쟁력. 20~30년 경력의 직원들이 많아, 그들의 업무 노하우만 역어도 책 수어 권은 거뜬하다. 올해 말까지 ‘작업 표준화 매뉴얼’ 제작을 목표 중인 김희락 과장은, 모든 노하우를 매뉴얼에 담고 싶다고 말했다.

“회사에 장기근속자가 많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업무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 특히 축적된 노하우는 실패를 줄이고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해주는데요. 제가 만들고 있는 작업 표준화 매뉴얼에 노하우를 담을 수 있다면, 최고의 제품생산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작업자에 따라 생산 품질이 달라진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요소니까요. 누가 작업을 해도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면, 인력 활용에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장기근속자들의 퇴직으로 업무 숙련자가 줄어들 때, 매뉴얼을 숙지한 젊은 직원들을 해당 자리에 배치하는 식으로요.”



SIMPAC주물의 경쟁력은 현장 노하우만이 아니다. 다른 듯 닮은 두 공장 간의 협력도 탄탄하다. 주조를 맡은 남동공장 분위기가 강하고 속도감 있다면, 가공과 품질관리가 이뤄지는 가좌공장은 섬세하고 꼼꼼하다. 남동공장의 생산품은 가좌공장 가공제품의 질을 결정짓고, 가좌공장에서 찾아낸 생산품의 문제점은 남동공장 업무개선에 꼭 필요한 피드백이 된다.

“예전에는 팀끼리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방식으로 일했다면요, 지금은 한쪽에 결원이 생기면 다른 쪽에서 총원해주는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만 잘하기보다, 업무 전반을 두루 볼 줄 알도록 직원을 교육하는 거죠. 저만해도 소재에서 품질로 다시 생산을 거쳐 품질로... 여러 부서를 경험하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김정인 대리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찾아 피드백을 나누며, 여러 업무를 경험하는 기회가 모이면 성과도 얻는 것이라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직원들이 함께할 때 SIMPAC주물을 성장시키는 시너지는 강해진다.





#동반성장은 우리의 꿈이자 회사가 도달할 미래

“모두 비슷한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왕 SIMPAC주물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나왔으니까요. 생산량도 매출도 회사 규모도 커질 수 있을 만큼 커져 봤으면 좋겠어요. 경쟁업체도 많고 성장에 따른 규제도 적지 않지 만요. 회사가 발전하면 직원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자부심도 높아질 겁니다. 직원들이 얻은 성과는 다시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되돌아갈 테고요. 이렇게 회사와 직원들이 동반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확 인하게 되네요.”

SIMPAC주물 직원들의 꿈이 무어나는 물음에 박지운 과장은 망설이지 않고 답을 이어갔다. 다품종 대량생 산이 이뤄져야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된다며, 자동화 라인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현실적인 검토가 필 요한 일이지만, 한 번쯤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들려주었다. 김희락 과 장은 “현장에서 땀 흘릴 젊은 인적 자원이 확충돼야 달라질 수 있다.”며 근무환경에 대한 재정비도 고민해보 자고 했다. 마치 준비라도 한 듯 회사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속속 흘러나왔다. “기술집약적인 제품 생산이 답.”이라는 김정인 대리의 말까지 더해지고 나니 SIMPAC주물이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였다. 세계시 장에서 SIMPAC 두 글자를 각인시키려면, 아까 역시 무거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묵 묵히 현장을 지켜온 SIMPAC맨들이 있는 한, 먼 길도 무거운 짐도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이 SIMPAC 주물이다



소재생산팀 김희락 과장

“많은 장기근속 직원들이 긴 시간 회사를 지켜왔다. 그들의 실전 노하우는 현장을 움직이는 동력이자,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됐다.”



소재생산팀 박지운 과장

“SIMPAC주물은 맹렬히 열기를 뿜어내는 용탕 같은 곳이다. 지금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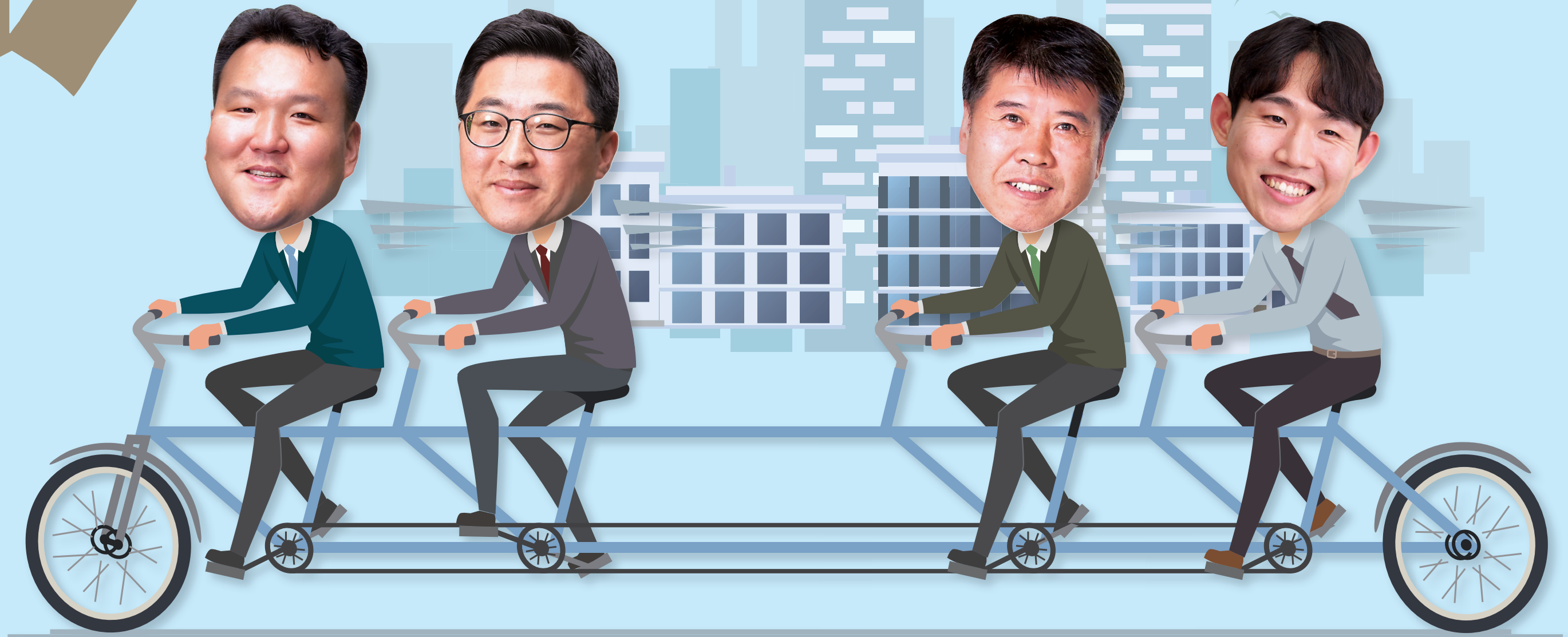
품질지원팀 김정인 대리

“우리는 강인하고 단단한 쇠를 만들어낸다. 그 쇠처럼 강한 마음으로 쉽게 꺾이지 않는 노력으로, 더 높이 성장하고자 한다.”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일터를 위해
우리는 달린다!

SIMPAC 메탈BU 경영지원2팀 선헌규 과장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1팀 권성안 과장
SIMPAC주물 경영지원팀 윤승환 차장
SIMPAC홀딩스 경영지원실 이도영 사원

직원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시선을 두는 이들. 일상적인 업무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의 존재감은 여실히 드러난다. 바로 기업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다.
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쳐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멀티 플레이어 4인이 털어놓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우리는 다방면의 멀티플레이어!

인사 관련 업무는 매우 넓고 광범위하다. 회사 경영의 A부터 Z까지 모든 분야를 총괄하기 때문이다. 요즘 말로 하면 '멀티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그래서일까. SIMPAC 메탈BU 선풍규 과장, SIMPAC 프레스BU 권성안 과장, SIMPAC주물 윤승환 차장, SIMPAC홀딩스 이도영 사원 이렇게 네 사람이 모이니 시나브로 이야기꽃이 만발한다. 서로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입을 뗀 이는 선풍규 과장이다.

“포항1·2공장 노무, 총무, 인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를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하면, 출생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전 과정을 모두 살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해요. 업무가 잘 돌아갈 때는 못 느끼지만,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업무 하나하나가 직원과 회사의 이익이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신중을 기하게 되고요. 직원들의 만족도와 회사의 신뢰도가 제 손에 달린 일 아니까요.”

선풍규 과장의 말에 모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윤승환 차장은 “인사 업무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미션과 엔진을 빼고 다 연결되어 있는 섀”이라고 덧붙였다. 윤승환 차장은 2002년 입사해 어느덧 인사 관련 업무만 20년째 하고 있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 인사 업무 10년을 넘기고 나니 이제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될 정도란다.

“경영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업무입니다. 회사는 성장이나 매출을 중요시하지만, 성장과 매출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의 지원이 따를 때 일어나는 법이지요. 특히 법률적인 문제, 소송과 민원, 40시간제 근로기준법, 화학 물질관리법 등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분야가 예민하고 전문적입니다. 법률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하죠. 현장에 가서 차 한잔 마시는 일도 업무로 이어집니다. 그때 직원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직원들과의 소통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 때문에 전사의 모든 임직원과 네트워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임직원의 모든 회사생활에 거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내의 모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마음을 터놓고 다가가서 직원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기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권성안 과장은 소통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회사나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만나서 얘길 하다 보면 마음이 풀어질 때가 많거든요. 제가 원래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10년 정도 인사 업무를 맡으면서 말수가 많아졌어요. 성격도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웃음)”

출근하고 싶어지는 회사,
일하고 싶은 직장을 위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선배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는 이도영 사원의 눈빛이 반짝였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이니까 선배들의 경험담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모양이다. 인사, 총무, 빌딩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영 사원은 최근 신규 채용 업무를 맡으면서 일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꼈다.

“채용 준비를 하다 보니 무엇보다 제가 입사를 준비할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모든 과정을 거쳐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 느껴지는 보람이 매우 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선배님들처럼 여러 방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 채용에 대한 이도영 사원의 말을 들은 권성안 과장은 최근 하게 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사람을 뽑는 일에는 신중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사람 한 명, 한 명을 뽑아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채용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채용 업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년퇴직까지 우리 회사와 함께할 수 있을까’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SIMPAC이라는 한 배를 탄 동반자인 셈 아니까요.”

권성안 과장은 주말에 온다는 태풍 ‘링링’을 걱정했다. 이는 선풍규 과장도 마찬가지. 태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주말과 명절을 비롯해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늘 레이더를 켜둔 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어느새 이들의 이야기는 끝을 향했다.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직장을 만들고 싶다는 네 사람. 일이 재미있으면 창의력이 나오고, 창의력은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 윤승환 차장은 “그러려면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화 속에서 자신이 존중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 네 사람은 직원들에게 늘 마음을 활짝 열어 놓고 자신들이 더 가깝게 다가서겠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나만의 업무 TIP.

SIMPAC주물 경영지원팀 윤승환 차장
HARD카페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만의 축수를 펼쳐놓고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를 구하는데요. 간혹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가
여러 사람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에게 필요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1팀 권성안 과장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제가 편하기 보단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업무를 찾기 위해 항상
마음을 다집습니다.

SIMPAC 메탈BU 경영지원2팀 선풍규 과장
직원들과의 소통에 있어 항상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또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직원 스스로 답을 구하기도 하고요.

SIMPAC홀딩스 경영지원실 이도영 사원
회사의 제도나 처우에 대한 것이 많다 보니 친구들과 만났을 때
각 회사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일터를 위해 우리는 달린다!

직원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시선을 두는 이들. 일상적인 업무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의 존재감은 여실히 드러난다. 바로 기업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다. 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쳐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멀티 플레이어 4인이 털어놓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1팀 권성안 과장



SIMPAC 메탈BU 경영지원2팀 선광규 과장



SIMPAC주물 경영지원팀 윤승환 차장



SIMPAC홀딩스 경영지원실 이도영 사원



우리는 다방면의 멀티플레이어!

인사 관련 업무는 매우 넓고 광범위하다. 회사 경영의 A부터 Z까지 모든 분야를 총괄하기 때문이다. 요즘 말로 하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그래서일까. SIMPAC 메탈BU 선광규 과장, SIMPAC 프레스BU 권성안 과장, SIMPAC주물 윤승환 차장, SIMPAC홀딩스 이도영 사원 이렇게 네 사람이 모이니 시나브로 이야기꽃이 만발한다. 서로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입을 뗀 이는 선광규 과장이다.

“포항1·2공장 노무, 총무, 인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를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하면, 출생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전 과정을 모두 살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해요. 업무가 잘 돌아갈 때는 못 느끼지만,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업무 하나하나가 직원과 회사의 이익이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신중을 기하게 되고요. 직원들의 만족도와 회사의 신뢰도가 제 손에 달린 일이니깐요.”

선광규 과장의 말에 모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윤승환 차장은 “인사 업무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미션과 엔진을 빼고 다 연결되어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윤승환 차장은 2002년 입사해 어느덧 인사 관련 업무만 20년째 하고 있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 인사 업무 10년을 넘기고 나니 이제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될 정도란다.

“경영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업무입니다. 회사는 성장이나 매출을 중요시하지만, 성장과 매출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의 지원이 따를 때 일어나는 법이지요. 특히 법률적인 문제, 소송과 민원, 40시간제 근로기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분야가 예민하고 전문적입니다. 법률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하죠. 현장에 가서 차 한잔 마시는 일도 업무로 이어집니다. 그때 직원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직원들과의 소통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 때문에 전사의 모든 임직원과 네트워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임직원의 모든 회사생활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내의 모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마음을 터놓고 다가서야 직원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기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권성안 과장은 소통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회사나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만나서 얘길 하다 보면 마음이 풀어질 때가 많거든요. 제가 원래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10년 정도 인사 업무를 맡으면서 말수가 많아졌어요. 성격도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웃음)”

출근하고 싶어지는 회사, 일하고 싶은 직장을 위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선배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는 이도영 사원의 눈빛이 반짝였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이니까 선배들의 경험담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모양이다. 인사, 총무, 빌딩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영 사원은 최근 신규 채용 업무를 맡으면서 일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꼈다.

“채용 준비를 하다 보니 무엇보다 제가 입사를 준비할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모든 과정을 거쳐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 느껴지는 보람이 매우 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선배님들처럼 여러 방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 채용에 대한 이도영 사원의 말을 들은 권성안 과장은 최근 하게 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사람을 뽑는 일에는 신중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사람 한 명, 한 명을 뽑아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채용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채용 업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년퇴직까지 우리 회사와 함께할 수 있을까'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SIMPAC이라는 한 배를 탄 동반자인 셈이니까요.”

권성안 과장은 주말에 온다는 태풍 '링링'을 걱정했다. 이는 선광규 과장도 마찬가지. 태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주말과 명절을 비롯해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늘 레이더를 켜둔 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어느새 이들의 이야기는 끝을 향했다.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직장을 만들고 싶다는 네 사람. 일이 재미있으면 창의력이 나오고, 창의력은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 윤승환 차장은 “그러려면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화 속에서 자신이 존중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 네 사람은 직원들에게 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들이 더 가깝게 다가서겠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나만의 업무 TIP.

SIMPAC주물

경영지원팀 윤승환 차장

HRD카페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만의 축수를 펼쳐놓고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를 구하는데요. 간혹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가 여러 사람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에게 필요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1팀 권성안 과장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제가 편하기 보단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업무를 찾기 위해 항상 마음을 다잡습니다.



SIMPAC 메탈BU

경영지원2팀 선광규 과장

직원들과의 소통에 있어 항상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또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직원 스스로 답을 구하기도 하고요.



SIMPAC홀딩스

경영지원실 이도영 사원

회사의 제도나 처우에 대한 것이 많다 보니 친구들과 만났을 때 각 회사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일에서 즐거움을 창조하는 기술 잡 크래프트 JOB CRAFT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가 주요 화두인 요즘,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업무 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효과적으로 업무에 몰입하는 방법이다. 조직의 구성원이 업무에 몰입해 생산성을 높이려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 잡 크래프트가 중요한 이유다. 크래프트(Craft)는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의미다.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인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다. 그럼 잡 크래프트(Job Craft)는 무엇일까?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을 더해 의미 있게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일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잡 크래프팅



구글은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무작위로 추출해 잡 크래프팅 워크숍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자신의 강점과 가치, 흥미에 따라 현재 맡은 업무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직무를 재설계하고, 이 업무에 필요한 조직의 관계를 재설정하며 자신의 일을 새롭게 정의했다. 이렇게 일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프로세스이며 이러한 행동이 바로 잡 크래프팅이다.

6주가 지난 다음 워크샵 참가자들의 매니저와 동료들에게 워크샵 이후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했다.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재설계한 업무에 대해 매니저와 동료들은 참가자의 업무 몰입도와 성과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자율적인 업무의 설계와 수행을 돕는 잡 크래프팅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한다는 결과다.

구글 외에도 로지텍이나 버츠비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잡 크래프팅의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KGC인삼공사, 경기도시공사 같은 한국 기업에서도 잡 크래프팅을 도입하는 추세다.

일의 만족도를 높이는 성장 마인드셋



잡 크래프팅에는 자신이 맡은 일을 주도적으로 해내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를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이라고 부른다. 성장 마인드셋의 개념은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캐롤 드웁이 처음 제시했는데,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조직과 팀, 상사가 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을 가진 사람보다 일에 대한 만족도와 성과가 높다.

에일 대학교에서 조직행동을 연구하는 에이미 브제스니에프스키 교수는 대학병원의 청소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대답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했다. 두 그룹은 담당 구역이나 근무 시간 같은 주변 환경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룹은 청소부가 하는 일을 매뉴얼에 따라 그대로 한다고 대답했고, 두 번째 그룹은 매뉴얼에 있지 않은 일을 종종 한다고 대답했다. 예를 들어 병실에 걸린 액자를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일은 매뉴얼에 없지만 두 번째 그룹의 청소부들은 환자들이 작은 변화에 자극을 받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길 바라며 그 일을 자진해서 했다. 첫 번째 그룹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답했으며 일에 대해 특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을 했지만, 두 번째 그룹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대답했다.

일의 영향력을 인식할 때 느끼는 보람



주 5일제가 시행된 이후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일주일에 5일을 행복할 것인가, 일주일에 2일을 행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일은 인생의 일부다.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도 작아진다.

일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때 더욱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저 판매에 열을 올리며 하나라도 더 파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던 세일즈맨이 고객의 성공을 돕기 위해 좋은 제품을 권하는 컨설턴트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는 순간 그 세일즈맨은 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는 일의 수준과 깊이, 일에 대한 만족감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자신의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영향력을 인식하고 업무를 계획하는 경우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과 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구성원들의 성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잡 크래프팅을 고민해 보자. 조직의 구성원들이 한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실행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조직 구성원 각자의 잡 크래프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높은 업무 몰입도와 만족도는 물론, 그에 따른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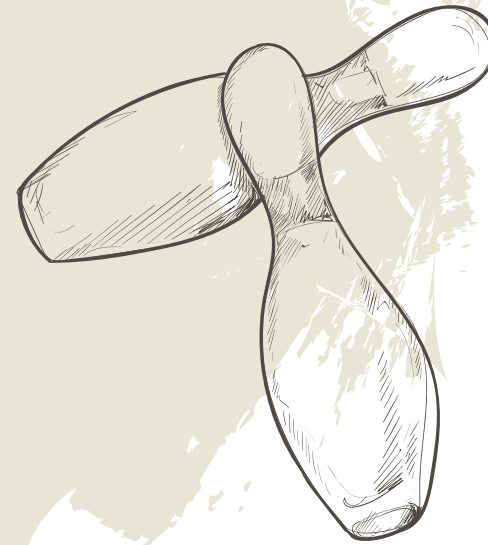


볼링 동호회 SIMPAC B.C의 통쾌한 시간



동료와 함께 즐기는 볼링으로 스트레스까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경쾌한 스트라이크가 전해주는 쾌감은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린다. 남은 핀들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스릴감은 볼링의 또 다른 매력! 공으로 핀으로 치는 행동이 단순해 보이지만 온 몸을 이용해 집중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땀으로 범벅이 된다. 초보부터 고수까지 실력에 구애 받지 않고 하나가 되어 경기를 즐기는 볼링 동호회 SIMPAC B.C 회원들을 만났다.



볼링으로 뭉쳐지는 동료애

볼링 동호회 ‘SIMPAC B.C(Bowling Club)’ 회원들이 퇴근 후 편한 복장을 갖춰 입고 볼링장에 속속 모였다. 볼링을 좋아하는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즐거움을 공유하는 시간인 만큼 회원들 얼굴에는 활기와 에너지가 넘쳤다. 볼링은 실내운동이라 날씨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 직장인들이 퇴근 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볼링만 한 운동도 없을 것이다.

지역 내 볼링 동호회에서 활동 중이던 경영지원1팀 정원식 과장은 회사 동료들과 볼링을 통해 교류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 올 4월 볼링 동호회를 창단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16명으로, 이들은 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분기에 한 번씩 모여 친목을 도모한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볼링 입문자라 아직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실력이 늘면 대회에 참가해 SIMPAC B.C의 기량을 펼쳐 보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회원들은 “직장 동료들과 볼링을 치면서 여가를 즐기는 덕분에 일과 개인의 삶 모두 윈-윈(Win-Win) 중”이라며 입을 모았다. 정원식 과장에게 볼링은 참으로 매력적인 스포츠다.

“볼링은 체력적인 부담이 적어 운동을 좋아하지 않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도 충분히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핀을 쓰러뜨릴 때는 쾌감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어요. 여러 부서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한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요.”



스트라이크로 날려버리는 스트레스! 동료와 함께하니 재미 두 배!

회원들은 두 팀으로 나눠 본격적으로 경기에 돌입했다. 멋진 경기를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 전 힘찬 파이팅을 외쳤다. 경기가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웃음소리와 함께 경쾌한 볼링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팀 대결이라고는 하지만 경쟁에 연연하기보다는 잘 치면 모두 함께 축하를 해 주고, 실수하면 위로를 건네는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SIMPAC B.C는 즐겁게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게임 자체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볼링 입문자의 경우 기초부터 차례차례 배울 수 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고객지원팀 정제린 과장은 “동호회 활동 전에는 평균 점수가 100점도 안됐는데 동호회에서 기초자세를 배운 후에는 100점 넘게 치고 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운 것 이 아닐까 같다.”며 밝게 웃었다.

이번 경기는 지난 5개월 간의 평균점수 대비 9월 경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회원에게 볼링화가 경품으로 주어진다. 회원들의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평균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회원에게 선물을 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게임 방식은 전 회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회원들은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 집중했다. 스트라이크를 칠 때면 환호가 이어졌고 서로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나눴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아!’ 하는 아쉬움이 섞인 탄식도 터져 나왔다. 실수를 한 동료에게는 “괜찮다”며 다른 동료가 어깨를 다독였다. 이처럼 회원들 간의 관계가 돈독하니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국내영업팀 김상엽 대리는 “볼링 최고점수가 두 자리 수였는데, 사내 볼링 동호회에 가입하고 불과 두 달 만에 130점이 되었어요.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직장생활에서 활력을 찾고자 한 선택이었는데 볼링 실력까지 늘어 기분이 좋습니다.”라며 동호회 활동에 폭 빠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경영지원1팀 김다희 사원은 “별다른 취미가 없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찾다가 볼링 동호회 가입했습니다. 비록 볼링을 잘하진 못하지만 동호회 활동으로 다양한 부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고 건전하고 재미있는 취미를 갖게 되어 동호회 활동에 만족하고 있습니다.”라며 엄지를 세웠다.



함께하니 더 행복한 시간

동호회 활동은 공감대가 잘 형성돼 동료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볼링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운동 상식, 자세 교정, 장비 정보 등 화젯거리가 다양하다.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동료 간의 정은 더욱 깊어진다.

정원식 과장은 “볼링 동호회는 SIMPAC인이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동료들과 즐겁게 운동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를 창단한 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회원수가 많지 않고 또 회원들 대부분이 아직은 초보의 실력을 갖고 있지만 꾸준한 활동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이 보다 많아지고 실력이 늘면 ‘SIMPAC B.C’라고 적힌 동호회 유니폼을 입고 아마추어 대회에 꼭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볼링 동호회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 드릴게요!”라며 동호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연신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던 볼링 동호회 회원들. 이들은 볼링을 통해 각자의 직위와 직급에 상관없이 하나의 팀으로 화합하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퇴근 후 하나가 되어 즐기는 이들의 저녁은 핀을 힘차게 때려대는 볼링공처럼 화끈했다.

SIMPAC STARGRAM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추억'을 주제로
심팩인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추억스타그램

이 코너는 사우들의 투고를 받아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사진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리스텍비즈 ZnO산화아연본부 생산지원팀
김영철 팀장



금요일 휴가를 내고 열심히 달려서 완도 명사십리 캠핑장 도착! 2박 3일 동안 우리 가족의 보금 자리를 사부작사부작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우리 막둥이는 처음 해수욕장에 와서 너무 신기하고 좋은가 봅니다. 바닷가에서 잡은 조개와 썩새우도 먹고 달고나도 먹고 불꽃놀이도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한 즐거운 시간~ ^^

#명사십리 해수욕장 #캠핑 #막둥이 #조개 #썩새우 #달고나 #불꽃놀이



SIMPAC 프레스BU 기술지원팀
김소현 사원



주말이나 시간 날 때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고는 합니다.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술도 한 잔 하다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위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딱새우 #전주여행 #전주맛집 #전주가맥집 #풍남수퍼 #J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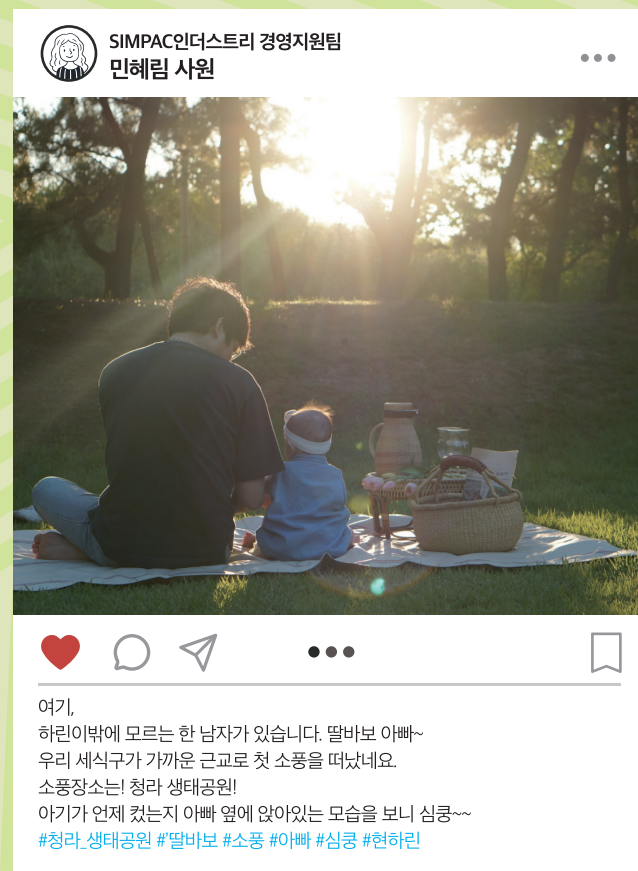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설비팀
이재형 대리



여름휴가 기간에 요즘 뜨고 있는 여행지 베트남 다낭에 다녀왔습니다. 날씨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행기간 내내 화창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사진도 멋있게 나왔고, 처음으로 패키지 여행을 가봤는데 같이 가는 팀원들 분위기도 좋고 친절하고 좋은 가이드님을 만나서 즐거운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좋은 기억을 안고 와서 그런지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혹시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낭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름휴가 #베트남다낭 #바나힐투어 #골든브릿지 #베트남쌀국수 #분짜맛집 #날씨요정



SIMPAC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SIMPAC을 있게 한 원천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 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SIMPAC Group



SIMPAC 홀딩스

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



SIMPAC 프레스BU

국내 No.1 프레스 메이커
• 기계식, 유압식, 서보프레스 생산



SIMPAC 메탈BU

국내 Top-tire 합금철 메이커
• 페로망간 및 실리콘망간 합금철 생산
• Roll 가공 및 제조



SIMPAC 인더스트리

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
• 산업기계 및 감속기 생산



SIMPAC 주물

국내 대표 주조 메이커
• 주조주물 생산



리스테크비즈

세계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업
• 고순도 산화아연 생산